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(서미화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168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2. 14.

발 의 자 : 서미화 · 허성무 · 이수진
안규백 · 박정현 · 강선우
이연희 · 한준호 · 한민수
정을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국회는 소위 3선 경호의 체계를 취하고 있는바, 회의장 및 그 인근은 경위, 국회 내 건물 및 그 인근은 방호, 국회 외곽 및 그 인근과 국회의장 공관은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의 국회경비대가 국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를 두고, 필요한 경우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방호나 국회경비대에 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현행 3선 경호 체계의 업무분장이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경위, 방호 및 국회경비대의 각 업무 구역을 명확히 규정하고 청사 질서 유지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

퇴거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 상시적인 안전 및 질서유지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144조 및 제145조의2).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4조의 제목 “(경위와 경찰관)”을 “(경호 조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경위(警衛)”를 “경위·방호 및 국회경비대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수행하되,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,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”를 “수행하되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역에서 업무를 수행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경위: 회의장 및 그 인근
2. 방호: 국회 내 건물 및 그 인근
3. 국회경비대: 국회 외곽 및 그 인근과 의장 공관

④ 제2항에 따라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구역에서 업무를 수행한다.

제1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5조의2(청사의 질서 유지) ① 의장은 국회 청사 내에서 국회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위해(危害)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다. 이 경우 유형력의 행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그 행위자에게 경고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상황으로서 경고를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44조(경위와 경찰관) ①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<u>경위(警衛)</u> 를 둔다.	제144조(경호 조직) ① ----- ----- <u>경위·</u> <u>방호 및 국회경비대</u> 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<u>수행하되,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,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.</u>	③ ----- ----- <u>수행하되 각각 다음 각</u> <u>호의 구분에 따른 구역에서 업</u> <u>무를 수행한다.</u>
<신설>	1. 경위: 회의장 및 그 인근
<신설>	2. 방호: 국회 내 건물 및 그 인근
<신설>	3. 국회경비대: 국회 외곽 및 그 인근과 의장 공관
<신설>	④ 제2항에 따라 파견된 경찰 공무원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구역 에서 업무를 수행한다.
<신설>	제145조의2(청사의 질서 유지) ① <u>의장은 국회 청사 내에서 국회</u> <u>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위해(危</u> <u>害)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</u> <u>있는 사람을 강제로 퇴거시킬</u> <u>수 있다. 이 경우 유형력의 행</u>

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그 행위자에게 경고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상황으로서 경고를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